

스마트 러닝을 통한 지식 나눔

이번에 구축되는 스마트 강의실은 단발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을 통하여 선진 교수법을 발굴하고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로 다른 전공 영역, 교수방법에 따른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운영 결과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교수법과 스마트러닝 구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스마트 강의실 확산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동성, 즉시성을 갖추고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의 장점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강의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학의 강의실 환경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강의 콘텐츠 제작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이패드는 콘텐츠 제작이 유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디바이스 특성상 카메라 촬영과 녹음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교실 현장에서 즉각적인 강의 콘텐츠 제작과 학생 발표 영상 제작 등이 매우 용이하다. 작성된 콘텐츠는 무들 시스템과의 과목 연동을 통해 디바이스 내에서 즉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목 내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구축되는 스마트 강의실은 서울대의 사명 중 하나인 지식 나눔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 강의공개시스템 콘텐츠로서의 활용과 유통에 활발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운영 보고

이희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교수

○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란?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는 서울대학교 기회균형특별전형(농어촌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서울대학에서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학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기회균형특별전형 입학생들은 전형의 특성상 고교 선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혼자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삶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보여준 숭고한 노력을 칭찬하고, 앞으로 서울대학에서의 대학생활의 적응과 대학공부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서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아래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전치사 sub와 ‘문지방’을 의미하는 라틴어 명사 limen으로 구성된다. 획기적이며 창조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인 ‘서브라임’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도덕적, 철학적, 영적, 그리고 예술적’인 위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원을 기원으로 하는 ‘서브라임’을 본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이들이 서울대학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전공 진입 이전 학과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신입생 1년 동안 같은 전형을 입학한 학생들과 선배 멘토, 리더 선생님께서 구성된 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공부하며 자신의 학업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였다.

## ○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의 활동

### - 입학전 교육 'SNU 새내기 Learning Camp'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입학관리본부는 공동으로 2013년 기회균형특별전형 합격자 191명을 대상으로 입학 전 시기를 활용하여 입학 전 교육 'SNU 새내기 Learning Camp' 를 2013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운영한 바 있다.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입생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들려주는 대학생활 설계하기, 학습유형 검사를 통한 자신의 학습전략 찾기, 대학공부에 필요한 학습 전략, 스마트 러닝 활용 전략, 미리 들어보는 서울대학교 명강의, 리포트 작성법 등의 특강을 들을 수 있었고, 같은 전형으로 입학하였던 선배 멘토와의 만남을 통하여 대학생활의 적응과 공부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입학 전 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를 안내하고 신입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 - 학습공동체 활동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는 신입생 1년 과정동안 대학공부에 필요한 주제별 학습은 그룹별로 운영해 가야 한다. 신입생 73명이 6조의 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영어, 수학, 글쓰기, 독서토론 등의 주제로 매주 1회씩 학습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공동체는 1학기 동안 총 64회가 진행되었고, 공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공과대학 선배와의 튜터링과 연계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이 수학·과학을 공부하였다. 1학기 활동을 종결하면서 활동 평가회를 수행하였고, 서브라임에 성실히 참여하였던 신입생과 선배 멘토 중 우수 멘티 6명, 우수 멘토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방학 중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방학 중 활동도 이어갔다. 그룹별로 학습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습지원금과 학습 공간, 튜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터디 활동을 수행하였다.

### - 장학기금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에 대한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을 유도하면서 장학기금도 모금하여 장학기금을 후원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멘토, 기업 인턴십 및 기업 탐방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2013년 장학기금은 총 68,600,000원이 모금되었다. 1학기에는 서브라임에 참여를 위한 신입생 멘티 73명(각 35만원), 기회균형으로 입학한 2-3학년 선배 멘토 13명(각 50만원) 총 86명에게 32,050,000원이 장학기금으로 지급되었다. 장학기금은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학습지원금(도서구입, 인터넷 강의수강, 영화감상 등)으로 활용

되었고, 학생들은 학습활동 일지를 매주 제출하였다. 1학기 평가회를 통해 우수 멘토, 멘티를 선발하여 장학금(총 1,6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1학기 총 사용액: 33,700,000원).

### - 기타 활동: 봉사활동 및 기업탐방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기부해 준 삼생생명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센터와 협력하여 2013년 6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인강단체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총 20명 참석). 또한 사회멘토단과 연결하여 기업 인턴십 및 기업 탐방을 통해 사회 경험을 쌓고 학생들의 잠재 역량을 계발하기 위하여 2학기에는 '세계경영연구원'의 전성철 대표의 초대로 기업 탐방이 계획되어 있다(2013년 9월 28일).

## ○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의 성과와 향후 과제

1학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활동 소감문을 제출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브라임에 소속된 동료들과 멘토 선배의 도움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멘토로 참여한 선배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을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다만 학기가 지날수록 수업 부담과 동아리나 학과 활동들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였다. 1학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평가회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조별마다 학습활동의 중심이 달랐고 멘토와 리더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서 애매했던 점 등을 보완할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2학기에는 1학기 활동성과를 토대로 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저녁시간에 학습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서브라임에 소속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과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이미 습득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인 공감과 자비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이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를 이끌어간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